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종소리』를 중심으로

하 상 일*

차 례

- | | |
|---------------------------------|--|
| I. 문제제기 | III. 2000년대 이후 총련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변화와 『종소리』의 시사적 의미 |
| II.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인들의 활동 양상과 의미 | IV.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의 방향과 의의 |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재외 한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 국가, 인종과 같이 문학을 갈래짓고 구분해온 전통적 기준들이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버림에 따라 이를 통합하거나 그 경계를 허무는 지점에서부터 쟁점적인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문학 연구의 방향 역시 ‘한국문학’이라는 지역적·언어적 한계를 넘어 ‘한민족문학’이라는 더욱 넓은 차원에서 재외 한인들의 문

* 동의대학교 교수

학을 한국문학의 범주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의식과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식민지의 억압과 모순을 피해 만주로 연해주로 망명 혹은 이주를 했거나, 극심한 궁핍과 일제의 감시를 면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상당수의 민족구성원들은, 해방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 오지 못한 채 낯선 지역의 땅에서 온갖 핍박과 설움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외 한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적 고투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정체성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삶을 이어왔다. 재외 한인들의 문학적 활동은 바로 이러한 민족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굳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이런 점에서 재외 한인들의 문학작품은 그들의 정신사적 궤적과 실천적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재외 한인 문학 가운데 재일 조선인 문학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의 대부분이 소설 장르에 한정되어 재일 조선인들의 문학활동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이다.¹⁾ 물론 식민지사회의 억압과 모순,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정체성의 고민 등을 쟁점화한 재일 조선인 문학의 핵심 주제는, 개인의 정서나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시문학보다는 인물과 플롯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전면화하는 서사 장르에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 소설문학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의 형성과정과 이데올로기적 기반 그리고 재일 조

1) 지금까지 논의된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김사랑, 장혁주, 김달수, 김석범, 이희성,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등 소설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인의 경우, 김시중, 허남기, 종추월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고, 비평가의 경우에는 윤학준, 임전혜, 김학현 등의 활동이 주목되지만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바는 전혀 없다.

선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언어의식의 괴리 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의의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지금과 같이 소설문학에 한정된 논의를 넘어서 시, 평론, 수필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에서 한글문학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단과 이념의 상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 한글 창작을 고집해온 시인과 작가들 대부분이 <재일조선인총연합>(이하 <총련>으로 약칭)의 하부조직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으로 약칭)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의 남한 현실에서 북한문학의 이념과 창작방법론을 수용한 <총련>의 문학을 우리 문학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문학 연구가 통일문학사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문학사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재외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사의 총체적 완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재일 조선인 문학 연구의 토대를 더욱 넓히고자 하는 데 있다.

II.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인들의 활동 양상과 의미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시인은 허남기이다. 그는 191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제2상업학교(현재 부산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총련>의 문화부장, 부의장, <문예동> 위원장을 역임했고, 『허남기 시선』을 비롯한 10여 권의 시집을 남기고 1988년 사망했다. 그는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 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민주조선』, 『조선문예』²⁾ 등의 잡지를 통해 김달수, 이은직 등의 소설가와 강순 시인 등과 교류하면서 재일 조선인 문학의 초석을 닦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생전에 『선물』, 『조선해협』, 『조선 겨울이야기』, 『화승총의 노래』, 『해바라기의 노래』, 『비수』, 『한 번 흐른 강물은 다시 막지 못한다』, 『길』 등 상당히 많은 시집을 남겼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남한문학사에서 그의 시문학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전혀 없었고, 이에 반해 북한문학사에서는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해 유고시선집 『조국에 바치며』(평양출판사, 1992)를 발간하기도 했다.³⁾

2) 해방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활동은 당시 발간된 신문, 잡지, 동인지 등의 매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5년 10월 결성된 <재일조선인연맹(朝聯)>에서 발간한 『민중신문』(『우리신문』<46년 8월> 『해방신문』<46년 9월> 『조선민보』<57년 1월> 『조선신보』<61년 1월>), 1945년 11월 결성된 <조선건국축전청년동맹(建靑)>에서 발간한 『조선신문』(46년 3월), 해방이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문예지인 『고려문예』(46년 11월), 시전문잡지 『조선시』(46년 3월), <조련>의 기관지 『조련문화』(46년 4월), <재일본조선문학회>에서 발간한 『우리문학』(48년 8월), <조선신보사>에서 발간한 종합지 『민주조선』(46년 10월), 문예지 『조선문예』(47년 10월), 우파적 성격의 잡지 『자유조선』(46년) 등이 있다. 특히 김달수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민주조선』은 해방이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주조선』은 1946년 4월부터 1950년 7월까지 통권 33호에 걸쳐 간행된 일본어 종합지이다. 『민주조선』은 종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관한 글이 전체 지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민주조선』의 문학적 공로를 간략히 언급하면, 첫째, 동포작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김달수, 이은직 등과 같은 작가들, 허남기, 강순 등과 같은 시인들을 배출하였고, 둘째, 김사랑, 김태준, 이태준, 김남천 등의 작품을 소개하여 재일 조선인 문학과 조국의 문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徳永直, 保高德藏, 小田切秀雄 등 진보적인 일본의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동포작가들과 일본문단의 교류 기회를 넓혔다.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년 8월, 83쪽 :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일본어문학』 제8집, 한국일본어학회, 2000, 107쪽.

3) 국내에 소개된 허남기의 시는, 민영 시인이 번역한 『화승총의 노래』(동광출판사, 1988)와 서경식의 『소년의 눈물』(돌베개, 2004)에 언급된 『영산강』이 있고, 그에 대한 연구로는 하상일의 『해방 직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허남기의 시를

강순은 1918년 강화 출생으로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을 다녔고, 김달수, 허남기 등과 함께 『조선문예』를 발간하는 데 참여했다. 생전에 『조선부락』(1953), 『불씨』(1956), 『강순시집』(1964), 『강바람』(1984) 등 4권의 우리말 시집과 『なるなり』(1970), 『斷章』(1986) 등 2권의 일본어 시집을 출간했고, 『김지하전집』(1974), 신경림의 『농무』(1977),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1979), 조태일의 『국토』(1980), 이성부의 『우리들의 양식』(1981), 양성우의 『겨울공화국』(1978) 등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과 남한의 시문학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재일 조선인 시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의 시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최근 재일 조선인 문학가인 김학렬이 재일 조선인 작곡시인들의 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강순의 「기억의 토막들」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김학렬은, 강순의 시가 후기 시집 『강바람』에 오면 이전과는 다른 변모양상을 보이는데, <총련>에도 <민단>에도 속하지 않은 조직 바깥의 바람을 ‘강바람’으로 표상한 것처럼, 남북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객관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과 조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민족성에 기반한 현대성의 추구를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⁴⁾ 그리고 윤의섭은 『강순시집』을 중심으로 한국어 시문학의 문화사적 의의라는 큰 틀에서 그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⁵⁾

김시중은 1929년 생으로 해방 직후 오사카로 건너가 지금까지 재일(在日)의 실존적 의미 탐구에 주력한 대표적인 재일 1세대 시인이다. 1951년 10월 오사카에서 결성된 <재일조선문화인협회>에서 발간한 종합지 『조선평론』에 참가했고, 1952년 시전문 동인지 『진달래』 창간을 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8. 8.)가 있다.

- 4) 김학렬, 「잊혀지지 않는 시 ③ - 재일조선작곡시인들의 시 ; 강순, 『종소리』 31호, 2007년 여름호, 35~39쪽.
- 5) 윤의섭, 「재일동포 강순 시 연구 - 『강순시집』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15집, 한중인문학회, 2005. 8.

도했다. 1955년 첫시집 『지평선』을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1957년 두 번째 시집 『일본풍토기』를 발간했다. 애초에 세 번째 시집으로 기획했던 『일본풍토기Ⅱ』는 총련과의 갈등과 『진달래』의 해산 등을 겪는 와중에 중단되었고 그 원고마저 분실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은 1970년에 와서야 장편시집 『니카타(新潟)』를 출간할 수 있었고, 1978년에는 『삼천리』⁶⁾ 창간호(1975)부터 1977년 여름호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을 출간했다. 이후 그는 『광주시편』(1983), 『들판(原野)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등의 시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 제일 조선인 시문학에서 가장 왕성한 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시세계가 제일 조선인 시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보여주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이상에서처럼 해방 이후 제일 조선인 시문학의 흐름은 허남기, 강순,

6) 1975년 2월 1일 발행인 이철, 편집인 이진희, 편집위원 김달수, 윤학준, 강제인, 박경식, 김석범 등에 의해 창간되어 1987년 5월 1일 제50호를 끝으로 중단된 계간종합문예지이다. 역사학자와 문학인들로 구성된 편집진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삼천리』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일관계, 조선의 역사, 조선의 문화, 제일 조선인들의 실상 등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글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문학의 경우 당시 「오적」 필화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김지하의 문학을 창간호의 특집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서 그의 재판기록과 증언내용, 김지하 구명을 위한 주변인물들의 호소문 등 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김지하의 문학세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상일, 「제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2006. 4. 400쪽.

7)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제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한림일본학연구』 제7집, 2002 ; 호소미 카즈유키, 「세계문학의 가능성 - 첼란, 김시중, 이시하라 요시로의 언어체험」,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 마츠바라 신이치, 「김시중론」, 홍기삼 편, 『제일한국인문학연구』, 솔, 2001.

김시중 등에 의해 초석을 닦았고, 이를 토대로 김윤, 정화수, 김학렬 등이 재일 조선인 시문학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은 <총련> 계열이 아니라 <민단>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글로 시를 써온 특이한 이력의 시인이다. 그는 1932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전시연합대학 시절 부산에 모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신작품』의 동인(고석규, 천상병, 송영택, 김재섭, 김소파, 이동준, 김동일)으로 활동했는데, 2집에 「호수», 3집에 「나무», 4집에 「가을」을 발표했고, 5집부터는 동인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데, 이 무렵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에서는 그의 본명인 김동일(金棟日)로 시를 발표하였고, 이후 일본에서는 김윤이라는 필명으로 『한양』⁸⁾을 중심으로 시창작 활동을 펼쳤다. 『현대문학』 동경지사장을 맡은 인연으로 두 권의 시집을 <현대문학사>에서 발간했는데, 『명든 계절』(1968), 『바람과 구름과 태양』(1971)이 있다.

김학렬은 1935년 교토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였고, 1962년 <조선신보사>에 「일어서라, 한강 사나운 물결아!」가 당선되면서 시작 활동을 했다. 시집으로 『삼지연』(1979), 『아, 조국은』(1990) 등을 상재했으며,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연구』(1996)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수 칭호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대학교 교수와 <문예동> 부위원장을 맡아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이론적 토대와 문학사적

8) 「한양」은 4월혁명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창간된 월간 교양지로, 편집인겸 발행인은 김인재였다. 잡지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문학작품, 당대의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문 및 시론(時論) 등 재일 한인들의 의식과 정서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양은 당시 변혁기에 있었던 1960년대 한국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으로써 한국문학의 변화와 성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2005, 26쪽.

정리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총련> 시문학의 방향성과 <문예동>의 조직과 북한문학의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홍용희의 글⁹⁾이 있다.

정화수는 부산 동래 출생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했고, <문예동>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총련>의 문학활동을 조직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가 남긴 시집으로는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1980)가 있다. 현재 그는 <문예동> 소속 재일 조선인 시인들의 모임인 <종소리 시인회>를 이끌면서 시전문 동인지 『종소리』의 발행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다. 『종소리』는 2000년 1월 창간되어 2008년 신년호(2008년 1월 20일 발간)까지 총 33호를 발간한 계간 시전문 동인지이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종소리』 20호 발간을 기념하여 『종소리 시인집』이라는 시선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화수는 현재 <총련>의 재일 조선인 시문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인으로, 그의 시세계와 『종소리』는 앞으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⁰⁾

9) 홍용희, 「재일 조선시와 조국의 노래 - 김학렬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시작』 2005년 가을호.

10) 필자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일본 동경에 있는 정화수 시인의 집을 방문하여 재일 조선인 시문학을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재일 조선인 시문학은 북한문학의 일방적 영향을 벗어나 시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종소리』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즉 그동안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보여왔던 이념적 경직성을 벗어나 서정시의 본령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종소리』에 수록된 시작품 전반에 걸쳐 아주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Ⅲ. 2000년대 이후 총련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변화와 『종소리』의 시사적 의미

<총련>의 <문예동> 소속 재일 조선인 시인들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종소리』를 창간하였다. 이는 “해가 가고 세월이 바뀌여/새세기 새천년대를 맞는/송구영신(送舊迎新)의 분기점/여기서 인류는/그 어떤 종소리를 울려야 할 것인가”(『종소리』, 창간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즉 『종소리』의 창간은 재일 조선인으로서 민족적 사명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시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다짐하는 실천적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처럼 시가 요구되는 시기는 없다고 봅니다.

예나 금이나 사회가 발전하자면 민족의 광심, 시대의 선구인 시문학이 필요했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의 경우에도 역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조국의 통일이 지연되어 동포들의 세대가 몇차례나 바뀌고 민족성이 희박해져가는 지점에서는 이제 그 어떤 위구를 느낄만큼 민족성 문제는 립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학예술운동이 한몫을 단단히 해야 함은 물론이요 더욱이 문학이 앞장서는 것이 자못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대를 앞질러가는 시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며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종소리』에 참여한 우리들은 작은 힘이나마 한데 묶여 우리 민족문화와 민족성을 지키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저 이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¹¹⁾

인용문은 『종소리』 창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생각을

11) 『편집후기』, 『종소리』 창간호, 2000년 1월.

담은 「편집후기」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종소리』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시인들의 노력을 담은 동인지이다. 지금 재일 조선인 사회는 재일 3세 이후의 세대가 주축을 이루게 됨에 따라 ‘민족성’을 내면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즉 재일 3세 이후 세대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굳이 되새길 필요조차 없는 낡고 고루한 전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일’이라는 존재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민족적 정체성(identity)의 부재를 당연시하는 재일 사회에서 재일 조선인 문학의 특수성을 해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혼란과 혼동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것이 현재 재일 조선인 문학이 직면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종소리』는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 문학예술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의 량심, 시대의 선구인 시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대를 앞질러가는 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 데서 『종소리』 창간의 시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발전과정은 재일 조선인의 사회운동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화국 창건 이후 <총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1948년 9월~1955년 4월), 둘째, <총련> 결성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창작의 기치를 드높이던 시기(1955년 5월~1973년), 셋째, 재일 조선인들의 조국방문을 시작으로 사상예술성의 강화가 이루어진 시기(1974년~1990년대)로 구분된다.¹²⁾ 이러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흐름에서 『종소리』의 창간은 넷째 시기의 출현을 의미할 만큼의 변화와 경계의 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시 창작에 있어서 사상성을 강조했던 이전의 경

12)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 연구(1)」,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호, 74~75쪽.

향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상성과 예술성의 조화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예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리』는 “시문학의 사상은 서정화된 사상이지 결코 개연적 논리의 그것이 아니”고, “시의 사상감정은 시인의 직설적인 주장에서보다 주로 작품에 표현된 생활적인 표상이 자아낸 정감(서정)에 기초하여 비로소 독자들에게 감명깊게 감동적으로 전달되는 법”¹³⁾이라는 창작방법론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재일 조선인 문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재일 조선인들의 자기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의 추구’를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재일 조선인 문학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 아이덴티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항적 아이덴티티, 민족적 아이덴티티, 재일적 아이덴티티, 실존적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것이다.¹⁴⁾ 이는 재일 조선인들의 문학적 지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재일 조선인 문학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네 가지 아이덴티티는 명확히 구분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재일 조선인 문학에서 저항적, 민족적, 재일적, 실존적이라는 특성은 혼재되거나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양상으로서의 구분은 다소도 식적인 접근으로 재일 조선인 문학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획

13) 김학렬, 「절절한 망향의 정감, 세련된 시적 형상 - 정화흠 시집 『민들레꽃』을 두고, 『중소리』, 2000년 10월(제4호), 47쪽.

14) 저항적 아이덴티티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주제로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데서 구현되는 것이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조국(조국의 상황)으로의 귀일 감정과 통일 지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며, 재일적 아이덴티티는 일본 국가와 사회가 초래하는 부조리에 대항함으로써 방향지어지는 것이고, 실존적 아이덴티티는 인간 존재를 내면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가 이 지로, 「在日文學論」, 新幹社, 2004, 7~112쪽; 「식민 제국과 재일 조선인 문학의 조망」,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65~66쪽.

일화하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조선인 문학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신적 지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재일 조선인 문학 작품의 구체적 양상과 네 가지 아이덴티티의 방향이 일치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재일 조선인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전체적 지형 속에서 <문예동>의 시적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수령에 대한 우상화, 둘째, 남한의 변혁운동에 대한 추동, 셋째, 일본사회 속에서의 재일 조선인의 권익에 대한 문제, 넷째, 조국에 대한 향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종소리』는 <문예동>이 추구해온 그동안의 문학적 지향을 충실히 이어가면서도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변화 양상을 드러냈다. 즉 『종소리』 이전의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문예동>의 시적 경향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종소리』에서부터는 그 강조점이 셋째, 넷째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소리』에 수록된 시작품의 주제의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뚜렷히 나타난다. 즉 남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사회현실의 모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앞세우기보다는, 조국에 대한 근원적 향수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내거나 분단과 이념에 의해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의 고양은 재일 조선인들의 시의식이 정치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평생을 디아스포라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재일’¹⁷⁾의 문

15)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12, 209쪽.

16) 홍용희, 앞의 글, 223쪽.

17) ‘在日’을 “일본에 산다(日本ですむ)” “일본에 있다(日本にいる)”라고 하지 않고 ‘재일한다(在日する)’라고 하는 경우 ‘재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의미

제에 천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향땅 시골에서/편지가 왔습니다/할미꽃동산에 할미꽃 피었다고//잊지 못할 고향의/할미꽃 동산/올해도 피었다는 할미꽃소식//눈감으면 삼삼히 떠오르는/슬픔이 웃음보다 많았던 시절에도/해마다 피어나던 그 할미꽃//젊어서도 할미꽃/늙어서도 할미꽃/허리가 굽어서 그 이름이런지//허리는 굽어서도/굽히지 않는/조선의 할머니의 그 마음이런지//반만년 기구한 세월속에서도/열두치마폭에 고이 감싸온/먹은 마음 변치 않는 그 절개여//그 절개 지니고 피었습니다/오곡이 열매지는 자지빛 옥도/그 빛깔 품고서 피었습니다//할미꽃 할미꽃/내 고향 할미꽃/너를 반겨나비도 춤을 출테지//사람도 변하고/세월도 변했건만/변함을 모르는 너 할미꽃아

- 정화흠, 「할미꽃」 전문, 창간호(2000년 1월)

『중소리』에 시를 발표한 시인은 정화수, 김두권, 김학렬, 김운호, 정화흠, 홍윤표, 오상홍 등의 창간동인을 비롯하여, 김지영, 오향숙, 오홍심, 김응교, 천재련, 정구일, 서정인, 서일순 등이 있다. 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방한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이다. 특히 인용시와 마찬가지로 「들장미」(김두권, 1호), 「진달래꽃」(김두권, 9호), 「나리꽃」(김두권, 14호), 「단감나무」(정화수, 17호) 등과 같이 고향의 정경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이나, 「썩은 썩국이요」(정화수, 1호), 「호박찌개」(정화흠, 8호), 애호박(정화흠, 16호), 「열무김치」(김학렬, 19호), 「찰강냉이」(정구일, 20호), 「안동소주」(김학렬, 21호), 「호박전」(정화흠, 28호),

가 아니라 복잡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 즉 '재일한다'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인 행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 스스로가 주변부의 존재이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일' 조선인의 문학은 '재일하다'라는 행위를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시키는가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재봉, 「재일한 인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화회 엮음,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162~163쪽.

「감자부침이」(정구일, 31호) 등과 같이 고향의 정겨운 음식에 기대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의 제재는 재일 조선인들의 일상적 생활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는 민족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재일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한 결과로 보여진다.¹⁸⁾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은 <총련>의 조국방문(정화흠 「고향방문시초」, 5호/정화수, 「이제야 고향을」, 7호/김학렬, 「서울행」, 22호),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6·15민족작가대회 참가(정화흠, 「백두의 해돋이」/김학렬, 「통일해돋이 해살되여」/오홍심, 「천지 바람」/정화수, 「백두산정에서」/정구일, 「민족 대축전」/김지영, 「조국의 산하」, 모두 24호 특집으로 발표),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6·15통일대축전 참가(정화수의 「<만남의 광장> 시초, 27호)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뛰어넘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어머니/이제야 고향을 방문할수 있다니/오허려 가슴이 미어집니다//
 온갖 고문과 수모를 당하면서도/남편과 아들의 행처를 숨기며/똥똥이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고향의 그 바다인가요/흰 저고리치마 단정히 입
 으시고/큰 돌 우에 앉아 멀리를 보시는 모습//내 오늘도 조용히 우러러
 보며/고개 숙여 사죄합니다/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라고요//인편으로
 이따금 당부도 하셨지요/살아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만나 볼수는 없
 겠는가고//그 때마다 그랬습니다/겨레가 다 만날 때면 만나리라고/그것
 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너무나 늦었습니다/반나절이 못되여 가당을
 고향을/반세기나 넘어서야 가게 되다니//참으로 억울합니다/어머니 안
 계시는 고향을 이제야 가다니요/나에게 고향은 어머니 품이 아닌가요//
 풀이 성성할 어머니 묘 앞에/머리 푹 숙이며 엎어 져야 하겠습니까/가슴

18) 복한의 비평가 류만은, “민속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하는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류만, 「민족의 넓이 높이는 애국의 『종소리』 - 시잡지 『종소리』를 읽고」, 『종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50쪽.

을 떨고 떨기만 해야 하겠습니까//어머니, 어머니/내 갔을 그럴 때만이
라도 잠시/되살아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어머니

- 정화수, 「이제야 고향을」 전문, 제7호(2001년 7월)

남북 분단과 통일을 전면화한 시로는, 「소들이 가네」(정화수, 1호), 「누
이들아」(정화수, 2호), 「꽃매듭」(홍윤표, 3호), 「철마는 달리고 싶다」(정
화수, 4호), 「다시 만나자」(홍윤표, 8호), 「동맥」(정화수, 15호), 「철길이
이어졌다」(홍윤표, 15호), 「손」(서일순, 15호), 「분계선의 코스모스」(김두
권, 19호), 「보자기」(오홍심, 19호), 「서곡」(김두권, 20호), 「나의 처녀작
은」(김윤희, 23호), 「절창」(김두권, 23호), 「올해도 봄이」(김윤희, 23호),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이승순, 24호), 「지척이건만」(천재련, 29호),
「철의 궤도」(정화수, 31호), 「먼동이 튼다」(김두권, 32호) 등이 발표되었
다. 특히 최근 발간된 32호(2007년 가을호)에는 <북남수녀자회담을 맞
이하여>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은 시편들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중소리』의 시적 지향이 분단과 이념
을 넘어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재일 조선인으로서의 역사적 상처와 소외를 초점화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억압된 재일 조선인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작
품도 상당수 발표되었다. 2003년 가을호(16호)에 마련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80주년 특집>에 발표된 「피묻은 역사」(정화수), 「봉선
화야」(오홍심), 「메우지 못하는 세월을」(김윤희), 「9월의 증언」(김학렬)
을 비롯하여, 「백로 보고 까마귀 되라는가」(김학렬, 2호), 「별거숭이나
무」(김학렬, 2호), 「이역의 돌」(홍윤표, 2호), 「너희들의 고향은」(정화수,
17호), 「도장」(김윤희, 21호) 등의 시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한 작
품이다.

향을 피운들/꽃을 드린들/그대들의 슬픔을 가지겠습니까//억울하게
죽어/갈곳조차 찾지 못하는/무연혼이 된 그대들/세월은 흘러흘러 80년//

헤매고 헤매다가/고마(高麗) 내 고장 이름 붙은 이곳에/찾아 왔건만//땅
은 이국땅/편한 자리는 찾기가 힘들어/아직도 혼은 중천을 방황하고//한
세기가 다 되어 가도/풀리지 않는 그 원한/향을 피운들 메우겠습니까/꽃
을 드린들 풀리겠습니까//억울한 세월을 메우려고/드리는 이 꽃이건만/
메우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도/아프고 쓰립니다/그래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꽃입니다/온 마음을 담은 꽃입니다

- 김윤호, 「메우지 못하는 세월을」 전문, 제16호(2003년 겨울)

재일 조선인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6년 가을호에서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 실시 60돌 기념특집>으로 기획된 「조국의 한끝.(정화수), 「반세기」(김윤호), 「유리창과 울타리나무」(서정인), 「꽃망울 운동회」(정구일)를 비롯하여, 「자그마한 의자」(홍운표, 18호), 「여기는 우리 학원」(류계선, 20호), 「민족교육」(정구일, 25호), 「농악무」(김두권, 25호), 「길잡이」(정화수, 25호), 「입학하는 외손자에게」(정구일, 30호)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학렬은 재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과 지향성에 대해, 첫째, 재일 조선인 문학은 일제 식민지시기 빼앗긴 아름다운 우리말을 도로 찾고,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을 회복하려는, 즉 재일 조선인의 ‘자기회복’의 부분, 둘째, 재일 조선인 문학은 식민지노예의 과거(문학의 내용: 황민화정책에 시달린 이그러진 민족정신, 형식: 일본어)를 거절, 청산할 뿐아니라 미일반동들이 감행하는 동화정책(일본인으로 귀화시키려는 방향)에 반대하여 떳떳이 살며 싸우는 오늘의 재일동포 생활상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자기증명’의 문학, 셋째, 재일 조선인 문학은 통일민족의 내일과 통일문학의 내일을 준비, 건설하는데 힘쓰자는 ‘통일, 내일 지향’의 문학이라고 밝혔다.¹⁹⁾ 이는 2000년대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방향과 『종소리』의 시사적 의미를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 문학연구자 류만은, “시는 생활 속에 있다. 그

19) 김학렬, 「재일조선문학이란?」, 『종소리』 23호, 2005년 여름호, 58~62쪽.

렇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다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 시를 찾아야 한다”²⁰⁾라고 했는데, 이러한 논평은 2000년대 이후 <총련> 계열 재일 조선인 시문학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재일 조선인 문학의 흐름에서 『종소리』는 그 전위에서 주체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에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IV.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의 방향과 의의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함에 따라 남북의 문학교류 역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문인들이 참여한 남북작가회담이 평양과 금강산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고, 매년 <민족문학연구소>와 <북한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가 근대문학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²¹⁾ 그리고 이러한 통일문학으로의 지향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재외 한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문인조직의 결성을 목표로 <한국작가회의>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남북작가회담의 정례화, 남북공동문예지 『통일문학』의 발간, <통일문학상> 제정 등 남북한 문학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재일 조선인 문학은 재외 한인 문학을 대표하는 중심축으로 남북한의 이념적 모순과 대립을 중재하고 남북한의

20) 류만, 앞의 글, 53쪽.

21) 지금까지 공동연구된 대상은 현진건, 강경애, 이육사 등인데, 강경애의 경우에는 남북공동논문집 『강경애, 시대와 문학』(랜덤하우스, 2006)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문학을 통합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종소리』에 발표된 시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제일 조선인 시문학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을 노래하든, 고향을 노래하든, 통일을 노래하든, 경직된 이념과 구호로 사상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동안의 창작방법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인식은 북한문학 내부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친일반동작가”일지라도 작품본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각도에서 이광수의 「개척자」라든지 최남선의 새 형식의 시작품의 긍정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나, “종래 부르주아 문학으로서 배제되었던 작가”들도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문학 역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²⁾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제일 조선인 시문학은 북한문학의 변화된 인식으로부터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한 시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일동포 문학연구에 있어서 <총련> 계열 제일 조선인 문학에 대한 논의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연구 태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시작품의 질적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제일 조선인 한글 시문학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종소리』에 발표된 시작품들과 더불어 제일 조선인 시인들의 개인 시집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는 이러한 종합적인 토대 위에서 더욱 총체적인 논의로 심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제일조선인시문학, 디아스포라, 종소리, 총련, 문예동, 정화수, 김학렬

22)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김학렬, 「조선문학 평가에서의 변화」, 『종소리』 제17호, 2003년 겨울호, 32~40쪽 참조.

참고문헌

기본 자료

『중소리』 창간호(2000년 1월) ~ 제32호(2007년 가을)

단행본 및 논문

마츠바라 신이치, 「김시중론」,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연구』, 숲, 2001.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 연구(1)」,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호.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한림일본학연구』 제7집, 2002.

윤의섭, 「재일동포 강순 시 연구 - 『강순시집』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15집, 한중인문학회, 2005. 8.

이소가이 지로, 「식민 제국과 재일 조선인 문학의 조망」,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일본어문학』 제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회 엮음,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2005.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2006.

하상일, 「해방 직후 제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8.

호소미 카즈유키, 「세계문학의 가능성 - 첼란, 김시중, 이시하라 요시로
의 언어체험」,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후 제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
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집, 서울대학교인문학연
구소, 2002년 8월.

<Abstract>

A Study on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 The Focusing *Jongsori*(『중소리』)

Ha, Sang-Il

This article is to observe the history and a poem of the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And change of 2000 after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the *Jongsori* it tried to observe. The now when the literature flow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ctive, researching the change of the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there is meaning which is important.

The *Jongsori* is the Poetry class magazine which the Chosun-Japaneses publishes. From 2000 spring until 2007 autumn it was published. Jeong Hwa-su, Kim Du-kweon, Kim Hak-ryul, Kim Yun-ho, Jeong Hwa-hum, Hong Yun-pyo and Oh Sang-hong announced the poem. The subject of poem to miss a hometown and to hope a unity.

The *Jongsori* shows the direction of the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newly. The next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with the *Jongsori* will change with together new subject. It means that the literature flow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ctivated consequently more.

Key Words : Chosun-Japaneses's Poetry-Literature, Diaspora,
Jongsori, Chongryun, Munyedong, Jeong Hwa-su,
Kim Hak-ryul